

# 2025년 5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안지연	5/4	[뉴스포커스] '강남3구' 아동 우울증 심각... "조기 사교육 악영향" [뉴스오늘] 집 보려면 돈 내나?...공인중개사 '임장비' 논란	
최미연	5/11	[뉴스특보] 민주당 "선거방해 진행 중"...한덕수·이낙연 개헌 공감대 [뉴스특보] 권영세 "단일화 실패 시 책임지고 비대위원장 사퇴"	
안지연	5/18	[토요와이드] 웨딩업계 '홍포에...예비 부부들' "스트레스 직접 준비해요" [뉴스투나잇] "어떤 게 진짜?"...해외쇼핑몰·은행앱까지 '사칭 주의보'	
김홍태	5/25	[뉴스오늘] 끊이지 않는 교제 살인...2년 새 2배 이상 증가 [뉴스리뷰]"시간·돈 모두 잃는다"...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이 중요	

##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5/4(일)	안지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학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 교육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스포커스> 보도 내용 살펴드리겠습니다. 보도는 조기 학습 스트레스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유독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보도는 문제 상황 제시에 주목해, 조기 사교육 열풍의 배경으로 지적된	단신이라 관련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고 추후 리포트 제작시 반영하겠습니다.

		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구체적 원인과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 학부모, 교육 정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구 체적으로 전달했다면 시청자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 입니다.	
2025 5/11(일)	최미연	스마트폰 해킹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 정보가 손쉽게 유출 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소비자 정보를 다 루는 기업들의 책임과 경각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는데,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이번 해킹 사건의 경과와 각계의 대응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이 최근 추가로 발견된 악성코드 8종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통신사 유심 정보 해 킹 사태로 인해 유통·물류업계도 보안 강화 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마트와 롯데 는 각각 신세계포인트와 엘포인트 통합 ID 서비스에서 SKT 및 SKT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인증을 일시 중단하며 회원가입과 정보 변경을 제한했습니다. 아직 피해 사례는 없 지만 선제적 조치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황 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개인정보 암호화, 삭제 정책, 보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다룬 두 보도는 사건의 위중함과 확산 가능성, 그리 고 민간·공공 부문의 대응 현황을 신속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공공성 측면에 서 의미 있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단순 전 달을 넘어, 기업 책임 추궁과 구조적 보완 과제 제시,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적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 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	SKT 해킹 사태 추이를 계 속 지켜보면서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구조적 원인 분석과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왜 일어났으며,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 답하는 보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 5/18(일)	안지연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비용 부담 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르는게 값이 라는 웨딩업계의 황포를 지적하는 말이 있 을 만큼 웨딩 관련 물가가 빠르게 오르며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 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결혼식을 보다 합 리적으로 준비하려는 새로운 방식들도 확산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보도 내용 살 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급격히 상승하는 결 혼 준비 비용으로 예비 부부들의 부담이 커 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식 준비 비용이 올해 441만원으 로, 5년 새 87%나 상승했다고 전하면서 이 들의 결혼 준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결혼 준비 비용의 지속적 상승 원인이나 기존 웨딩 산업의 문 제점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웨딩 업 계 종사자나 전문가의 시각이 더해졌다면 더욱 깊이있는 보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현상의 원인과 문제점 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5/25(일)	김홍태	지난 16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서울남부지 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첨단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 조작한 세력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검 찰은 라임사태의 주범 이모씨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와 양자기술, 시로봇 등 첨단 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세 곳의 주가를 조작을 하고 다수의 주가조 작 세력이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요,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출신 브	이런 사건의 경우 글 기사 와 달리 영상이 꼭 필요하 기사라 충분한 영상이 확보 되지 못하면 즉각 리포트 제작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 니다. 이번 사례가 그랬고 추후 리포트 제작 기회가 있을 때 심층적인 내용 반영할 계획입니다.

	<p>로커를 활용해 수사 무마를 시도하는 한편, 거래소 로비 명목으로 금품도 수수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라임사태 주범 중 한 명이 코스닥 상장사 세 곳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특히나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2차 전지·시로봇·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보도의 구체성을 위해서는 이모씨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 주가 조작을 했는지, 즉 허위 공시인지, 내부자정보 이용인지, 시세 조종인지 등도 밝혔으면 유익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던 라임사태 주범이 도피자금 마련이란 목적 아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가 해외증시보다 부족하단 평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필요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5. 04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0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학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조기 교육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스포커스>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조기 학

습 스트레스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유독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가 지난 2020년 1천 37건에서 2024년 3천 309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청구 건수는 291건으로, 이들의 작년 평균 청구 건수는 이보다 3.8배 높은 1천 103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실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교육계 관계자의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강남 3구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통해 조기 사교육과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조명했습니다. 단순히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가 수치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기 학습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육계 분석을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도는 강남 3구와 서울시 평균을 비교하여 지역별 격차를 수치로 구체화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에 실제로 악영향을 준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보도는 문제 상황 제시에 주목해, 조기 사교육 열풍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의 구체적 원인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동 심리 전문가, 학부모, 교육 정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면 시청자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매수 희망자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주택 상태나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는 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이사 철을 맞아 부동산을 방문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임장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현장 방문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임장객의 방문이 늘었으나 이 중 일부는 실제 매수 목적이 아닌 임장을 공부하는 모임인 '임장크루'로 추정돼, 이로 인한 피로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현장 안내에 들이는 서비스 비용을 받는 '임장비'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인한 영업 환경 악화 및 개업 중개사 수 감소 등도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임장비 도입 시 집을 구하려는 소비자가 여러 매물을 둘러보며 비교할 경우 그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공인중개업이 더 위축되고 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의 전망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추진 중인 임장비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 현장의 변화와 소비자가 안게 될 부담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단순히 제도 추진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개사들의 피로 누적 문제와 중개업계의 경영 악화라는 현실적 배경

을 함께 다뤘는데요, 특히, 입장객의 증가 원인을 단순한 수요 확산이 아니라 부동산 공부 차원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과 연결지어 설명해 추진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입장비 도입이 가지는 제도적 함의나 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부족과 중개업계 외에 소비자 단체, 부동산 정책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함께 담았다면 이 사안을 바라보는데 다양한 관점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제도 도입의 실질적 영향 등을 깊이 있게 다루고,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보다 균형잡힌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흥기를 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장 등 교직원과 학교 밖 시민 등이 다쳤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우발적 행위가 아닌 누군가를 해코지하려고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는 지난 28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 사건의 원인과 학교 안전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인 A군은 사전에 여러 자루의 흥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 정황이 드러나고 피해자가 많은 점을 경찰은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범행 이유로 지난해 특수 학급에서 공부하다 올해 '완전 통합교육'차원으로 일반학급으로 배치되면서 겪은 대학 진학 스트레스 등을 언급하며 피의자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포렌식해 범행 준비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경찰의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도는 이번 사건의 초점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포함과 동시에, 교사들이 모든 학급에서 학생지도 과정 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의견도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흥기 난동 사건을 통해 통합교육의 운영 실태와 교사 안전 문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이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통합교육 시스템 내에서의 지원 부족과 교사들의 안전 확보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이 특정 학생군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반적인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강조했는데요, 다만 통합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교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향후 관련 보도에서는 통합교육과 교사 안전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루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말기 고유번호 등 핵심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용자 불안은 계속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가입자들의 불편과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유심 무상 교체 대기표가 조기에 소진되어 유심을 교체할 수 없는

등 SK텔레콤 매장 앞이 혼잡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에서는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는 개당 7,700원인 SKT 유심을 15만 원에 거래한다는 상술까지 등장했다고 전하면서 일부 가입자들은 SK텔레콤의 대응에 불만을 표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유심 보호 서비스가 해킹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보도는 해킹 관련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아 휴대폰 불법 복제의 가능성은 없다는 정부의 발표를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인 FDS와 유심 보호 시스템에 잘 작동한다면 복제폰을 막을 수 있다는 한 전문가의 의견과 유심 서버 해킹이 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서버에 있는 개인정보 등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도는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보안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번 두 보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혼란과 보안 우려를 중심으로 사태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전달하며 가입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먼저 보도는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가입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유심 교체로 인한 혼란한 현장의 상황과 이를 악용한 중고 거래 상술의 등장, 가입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보여주며 가입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핵심 정보인 단말기 고유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포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두 보도에서는 유심 유출 사태에 대한 현장의 반응부터 정부 입장과 전문가 분석까지 단계적으로 전달하며, 시청자들이 상황의 전개 과정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관련 보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05. 1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0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심 공판 일정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기도 했죠.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

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로 내용을 겪기도 했죠.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이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 후보는 총청권을 돌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의 반발과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덕수 후보는 '반이재명 연대' 구상을 밝히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만나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 고문은 출마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5월10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일화 실패 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당내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단일화에 부정적인 인사들을 비판하며 당의 존속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단일화 약속을 지켜야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당 지도부가 자신을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당이 선거대책본부 구성이나 당직자 임명에 비협조적이고, 단일화 추진 기구도 후보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이번 보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갈등 구조와 단일화 문제를 중심으로 대선 정국의 흐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방식은 각 정당의 입장을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심층적인 맥락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 리스크 폭발'과 같은 표현은 갈등을 부각시키는 서사를 강화하는 반면, 해당 사건의 배경이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선거를 정책 중심의 경쟁이 아닌, 정치적 진영 대립과 인물 간 충돌 구도로 환원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정책과 공약, 그리고 사안의 본질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과 맥락 제공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파면 결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상황을 연합뉴스 TV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총 스물 여덟 차례의 공판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조사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검찰은 관련자 조사에 속

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김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크며, 서울고검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범 재조사를 우선하며 소환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이 두 보도는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보도의 객관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형사재판 상황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소환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대한 공적 사안으로, 언론이 이를 빠르게 전달한 것은 언론의 기본적 책무인 '시의성과 공공성'을 충실히 수행한 예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전달을 중심으로 정치적 의미와 제도적 함의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채, 단순한 사건 나열에 그친 보도 구조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국이 연이어 발표한 고율 관세 조치가 글로벌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 이어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물론, 영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과 그 여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의약품 규모는 39억 7천만달러에 달합니다. 의약품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이 관세를 높일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영화 산업의 급속한 쇠퇴를 언급하며, 외국 정부의 영화 산업 인센티브가 미국 스튜디오에 타격을 주고 있어 이는 국가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기존 수입차 관세보다 더 큰 산업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CNN은 차량당 약 561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5%로,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관세 발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바이오 업계의 긴장, 자동차 생산비 상승 전망, 영화 산업 위축 우려 등 관련 산업의 구체적 반응을 함께 다룸으로써 정책-영향-대응의 연결 구조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정책의 배경, 국제 정세와의 연결, 한국의 대응 전략 등 해석과 분석의 층위를 보강하고, 미국 내 반응 등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보완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실질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해킹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 정보가 손쉽게 유출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소비자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책임과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이번 해킹 사건의 경과와 각계의 대응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이 최근 추가로 발견된 악성코드 8종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확인된 4종의 악성코드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단은 유입 경로와 위치를 파악 중입니다. 현재까지 다른 플랫폼 기업들에는 피해가 없으며, 과기부는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대응 차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며,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 위해 당분간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접수 서비스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통신사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인해 유통·물류업계도 보안 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는 각각 신세계포인트와 엘포인트 통합 ID 서비스에서 SKT 및 SKT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인증을 일시 중단하며 회원가입과 정보 변경을 제한했습니다. 아직 피해 사례는 없지만 선제적 조치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은 개인정보 암호화, 삭제 정책, 보안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다룬 두 보도는 사건의 위중함과 확산 가능성, 그리고 민간·공공 부문의 대응 현황을 신속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단순 전달을 넘어, 기업 책임 추궁과 구조적 보완 과제 제시, 그리고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공적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보다 '왜 일어났으며,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보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5. 05. 1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0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르는게 값이라는 웨딩업계의 횡포를 지적하는 말이 있을 만큼 웨딩 관련 물가가 빠르게 오르며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결혼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준비하려는 새로운 방식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급격히 상승하는 결혼 준비 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스투메로 불리는 결혼식 준비 비용이 올해 441만원으로, 5년 새 87%나 상승했다고 전하면서 이들의 결혼 준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예비부부들은 고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온라인에서 드레스를 구매하고 스튜디오 촬영이나 메이크업도 직접 준비하는 등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세레모니웨어' 검색량은 전년 대비 90% 증가했고, 매출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호텔업계에서는 객실과 촬영 용품을 빌려주는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스투메 업체에 구매받지 않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성있는 결혼식을 선택하는 예비부부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예비부부들이 기존의 고비용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준비 방식을 선택하는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드레스 대여 대신 온라인 구매, 스튜디오 촬영 대신 셀프 웨딩 촬영을 택하는 등 실제 결혼 준비 방식의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소비자 선택 변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는 관련 업계의 반응까지 함께 다루며 결혼 산업의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결혼 준비 비용의 지속적 상승 원인이나 기존 웨딩 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웨딩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의 시각이 더해졌다면 더욱 깊이있는 보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유통업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이트처럼 정교하게 꾸며져 소비자들이 속기 쉬운 구조인데요. 낯선 링크 클릭이나 일반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유도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유명 유통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에 주목했습니다. 영국 대형 유통업체나 스위스 온라인 쇼핑몰, 국내 증권사 등을 흉내 낸 사이트와 앱은 실제와 매우 흡사해 일반 이용자가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 같은 가짜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대신 구매하면 수수료를 벌 수 있다고 속이거나,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도는 특정 쇼핑몰에서 일반인이나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고, PG사를 통하지 않는 방식 자체가 이상하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확인과 경찰청이나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기 의심 계좌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메신저로 온 낯선 메시지는 피싱 범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웹사이트 주소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유명 유통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에 주목했습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화면과 시민들의 실제 반응을 통해 소비자가 사기 수법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전문가 조언을 통해 사기 수법의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시청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나 낯선 링크에 대한 경고와 같은 예방책을 함께 안내해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나 수사당국의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은 아쉬웠습니다. 관련 기관의 입장이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다뤘다면 시청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역 공약을 내세우는 한편, 서로를 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연합뉴스TV는 유세 현장을 연결해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보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북극항로 개발,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이전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보도는 김문수 후보가 '산업 살리기'를 내세우며 진주, 사천, 창원 등을 방문해 과학기술 부총

리와 특임대사 신설, 원전 산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언급하며 “독재”,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 연결을 통해 전했습니다. 각 후보의 유세 일정과 주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해, 지역 민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시청자가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후보들의 발언을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전하면서, 단순한 스튜디오 전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구성으로 유세 흐름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전달된 내용은 대부분 지역별 공약 소개에 그쳐,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이라는 한계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현실성 검토나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 주민들의 반응 등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했는데,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만큼 유권자들이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서울 시내 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 후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데요, 갈등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스잇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 이후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노조는 대법원이 인정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서울시와 사측이 거부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의 요구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을 8% 인상할 경우, 인건비 총액이 약 25% 증가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현재 전국 22개 버스 노조 중 11곳이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고 결렬될 경우 동시 파업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전국 시내버스의 약 60%가 멈출 수 있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한 임금 협상 갈등을 중심으로,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노조의 주장을 전함과 동시에 서울시와 사측의 인건비 증가 우려 및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함께 소개해 갈등의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갈등이 서울을 넘어 전국 주요 도시로 번지고 있다는 점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에 대한 전망도 덧붙여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 보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쳐, 임금체계 개편이 왜 쟁점이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나 유사 사례 비교 등 맥락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업 이슈를 단순한 교통 불편 차원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해 조명했다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5. 05. 2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0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 17일 뉴스오늘인데요, 지난 5월초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옛 여자 친구 커플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같은 교제 살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데요, 최근 2년 새 피해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했는데요, 자신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9일 퇴원 뒤 체포됐고,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A씨는 3개월 전, 피해 여성과 교제할 당시에 폭력성을 보여 신고를 받았지만, 직후 화해해 종결 처리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교제 폭력이 결국 교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으로, 한국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공개된 사례만 최소 176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83명에 비해 2년 새 2배 넘게 는 건데요, 여러 변수가 작용했을 수 있지만, 교제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해 더욱 과감한 범행이 이뤄졌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 살인을 줄이려면 교제 폭력을 다룰 법령 개정부터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서, 적극적으로 접근 금지 명령 내려 한 번이라도 위반했을 땐 가차 없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처벌의 수위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교제 살인이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지표를 넘으면 일단 살인으로 입건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교제 폭력에서 시작된 살인이라도 우발성이 강조되면 상해 치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좀 더 엄중히 바라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이번 교제 살인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교제 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발생의 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사건 전달의 내용이 중심이어서 원인 분석과 예방 내용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청자들에게 현실적인 경각심을 주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행 내용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가해자들이 보통 사전에 어떤 위험 신호를 보였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사전에 폭력성 신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에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입건과 중범죄 처벌이라는 일반적인 얘기에 그친 점도 아쉽습니다. 현실에서 피해자 보호 방법이나 신고 시스템을 파악해 보고, 피해자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치의 내용, 실효성 등 시청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차후에라도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향후 방송에서 사실 전달 외에도 제도 개선 방향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의 내용을 좀 더 폭넓게 다루길 기대해 봅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을 강조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16일 뉴스리뷰에서는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도박,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10대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 개그맨 김재우 씨와 김영희 씨가 도박의 위험성을 주제로 무대에서 만담 중이고, 객석에 앉은 학생들은 웃는 얼굴로 경청하고 있는데요, 김영희·김재우씨는 도박은 시작을 하면 안되기에, 도박근절이라는 용어 자체도 잘못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부터 시작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맞아 부산과 대전에 이어 서울에서 마지막 행사가 열렸는데요, 심오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불법도박 운영자들이 온라인에 친숙하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서, 청소년 도박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가정·사회·국가의 문제이기에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번이라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5명 중 1명은 계속 도박을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유형도 온라인 카지노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도박에 빠졌다가 치료 중인 정동진 씨는 모든것을 잃게 만드는 도박의 무서움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충북 예산시 거주 정동진 씨는 스포츠 도박과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20살 때부터 13년 가까이 자신의 꽃같은 20대를 도박에 빠져 살다보니 하지 못한 것도 많고 놓친 것도 많았다고 후회합니다. 여러 체험활동을 해본 청소년들은 절대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정윤성·김태운 한양공고 건축과 2학년생들은 절대 도박해서 돈을 딸 수 없다 생각했고 경각심을 좀 더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언제든지 곳곳에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청소년 도박 예방 방송은 만담과 실제 체험을 전하고 있어서 생동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이 어떻게 도박에 빠져드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SNS나 게임 속 광고를 통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파악해보고, 가족의 무관심이나 방임 등이 자녀의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더 다룰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또한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지역별 상담 센터를 언급하고 신고 하는 방법 등도 언급했음 좋았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예방 교육 시스템과 이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사소한 이상 징후에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예방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도 짚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16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첨단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 조작한 세력 총 13명을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라임사태의 주범 이모씨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와 양자기술, AI로봇 등 첨단 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세 곳의 주가를 조작을 하고 다수의 주가조작 세력이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출신 브로커를 활용해 수사 무마를 시도하는 한편, 거래소 로비 명목으로 금품도 수수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라임사태 주범 중 한 명이 코스닥 상장사 세 곳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2차전지·AI로봇·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테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보도의 구체성을 위해서는 이모씨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 주가 조작을 했는지, 즉 허위 공시인지, 내부자정보 이용인지, 시세 조종인지 등도 밝혔으면 유익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던 라임사태 주범이 도피자금 마련이란 목적 아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에게 국내증시가 해외증시보다 부족하단 평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필요하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15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지난 3월 도입된 AI디지털교과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이 드러나 정부가 교육당국에 시정과 개선을 권고했다는데요, 특히 교육부에서 관련 기관들에 사고 발생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 마련 등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AI교과서 검

정 결과를 발표하며 '맞춤형 교육'을 강조했는데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실제로 교사들이 그동안 역량이 있어도 소위 개별 맞춤 교육을 하는 데 기본적인 한계가 있고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당국의 계획대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선 학생의 성취수준, 질문횟수, 모둠활동 참여도 등 70여종의 개인정보수집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AI교과서 통합포털 운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개인정보수집 항목과 목적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점검에 나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누락없이 고지하도록 시정 권고했으며, 특히 교육부에는 향후 AI교과서 검정심사 기준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을 반영하게 하고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별 개인정보침해·유출사고수습 체계를 한데 모아 사고 발생시 교육학술정보원과 각 출판사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 해줄 것도 당부했는데요,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은 개인정보가 보다 명확한 적법 근거에 의해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 권리도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AI교과서 서비스가 국가정보원 보안점검이나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본 보안 조치는 갖췄지만 개인정보 안전 조치는 미흡했다고 봤는데요, 이에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에 개인정보보호 기준 21개가 추가된 ISMS-P 인증 취득도 권고했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이 보도는 인공지능의 사용과 관련해 요즘 가장 쟁점이 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만 보도의 내용만으로 실제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 서비스에서 70여종의 개인정보수집이 필요한데 수집항목과 목적을 일부 누락한 것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교사들 관련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전한 것 등이 개인정보보호 취약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AI 교과서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5년 5월 4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5월 11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5월 18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5년 5월 25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